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아연주간뉴스단평 2021-05-23

아나키스트연대

아나키스트연대
아연주간뉴스단평 2021-05-23
2021.05.23

<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222362933537>

kr.theanarchistlibrary.org

2021.05.23

1. [그... 저... 그런말은하면안되고]

그, 저기, 유튜브같은신식문물을사용하신다고막있던허례허식이사라지고 직원들이사장한테하고싶은말다하고이러는게아니다. 많은사장님들이조금헛갈려하시는것같아우선적고시작한다.

롯데홈쇼핑이완신대표가하신것처럼'완신라이브(완전신박한라이브)'를 유튜브를통해쌍방향으로소통하셨다고해서직원들이무슨말이든할수있었는가? 기사를보면그냥대표님이하시고싶은말씀을유튜브를통해하셨을뿐인듯하다.

홈플러스이제훈사장님은조금나으신것같기도하다. "60 분간토코쇼형식으로진행" 되어모두그앞을지키고있어야했던롯데홈쇼핑보다는차라리영상촬영해서이메일로한번보내시면메일수신확인표시정도만하면되니전자보다는조금덜번거롭겠다는점에서그렇다. 그런데, 굳이뭐이런걸해야하는걸까?

물론풍운의꿈을안고새로이취임하셔서여러가지를진행하시고싶은그의지는이해가된다. 비단기업뿐만아니라어느집단이라도새로내가취임을하면이러저러한생각을가지고있다고밝히는것이꼭나쁜것은아닐수도있을것같다는느낌도없지않아있다. 하지만그것을한발더나아가이정도의'허례허식'도없이이것들을소통하는방식을고민해보면조금더좋은근무환경을직원들에게제공할수있는것은아닐까?

직원들이자신이할수있는만큼열심히일하고, 그에따라자신이필요한만큼이익을서로논의해분배하고, 사장님그방향틀린것같은데저희한테한번어떤아이디어로어떤아이템진행할지말겨보시죠하면그것을민어보고, 모든사장님이골프치러굳이가시지말고사장님께리필요한이야기만딱하고직원들과함께열심히일한다면, 아직도아쉬운이허례허식들조차굳이필요가없을것이다. 함께일하면서무슨생각하는지바로바로캐치가가능할테고, 내가생각하는것들을직원들과바로바로대화할수있을테니말이다.

의도는좋았다. 로우선평을감히드리고싶다. 하지만위에제안드린것들을사장님들이한번고민하고실천해보신다면저절로더욱좋은근무환경은마련될것이다. 사장님들의진의의를심하고싶지않다. 그러니아직도허례허식인것을허례허식이아니라는그런말은하지말고노동자들이직접자신의일에서주인이되어더욱능률높은작업을할수있도록함께나아가보시면어떨까.

"" 유튜브로소통" 허례허식벗어던진유통 CEO 들"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043344?ref=naver>

2. [꼴에'사회주의'국가라고]

최근전세계비트코인채굴광산의 3 분의 2 가몰려있는중국에서가상화폐에대한제재가점점심해지고있다. 단순히사용금지가아니라직접적으로채굴장을철폐하고단속하기시작했으니말다한셈이다. 물론이미국가자본주의의대명사가되어버린중국이기특하게진심으로사회주의를바탕으로비트코인및가상화폐

에 대해 비판하면서 제제를 가한 것은 아닐 것이다. 아마 자기들 스스로 전자화폐를 만들면서 이를 장려하기 위한 것도 있을 것이고, 애초에 자본주의 체제를 충실히 수호하는 자. 본. 주. 의. 국가가 공인한 화폐를 미쳐 날뛰게 놔두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때문에 중국은 스스로 새로운 주인인 자본주의의 명에 따라 가상화폐라는 이단자들에게 철퇴를 내린 것이다.

이렇게 정작 전통적인 자본주의 국가들은 거짓된 '자유, 평등, 박애'에 귀속되어 새로운 문물을 빙자한 역겨운 도박장을 때려잡지 못해 찢찢메는 동안, 자본주의 계의 다크호스, 국가 자본주의가 그래도 나름 사회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태어났다고 자본주의 체제 입장에서 '더러운' 일을 잘 수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이러한 역겨운 현실 속에서도 《아나키스트 연대》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든, 일당독재 '사회주의'든 모두 까기에 충실할 것이다.

” 전 세계 3분의 2 몰린 '중국 코인 채굴장' 집중단속... 집중단속” :
<https://news.jtbc.joins.com/html/406/NB12006406.html>

3. [기계를 멈춰]

지난 4월 22일 평택항에서 있었던 한 노동자의 비극적인 죽음이었다.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 안전교육과 안전장비의 미비 때문이었다. 하지만 경각심을 울리기에는 이번에도 충분치 않았는지 노동자들의 죽음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월 어린이날을 전후하여 현대중공업과 현대제철에서 일하던 노동자 3명이 연달아 숨졌다. 마찬가지로 안전환경의 미비 때문이었다.

이번에 안전보건공단에 건설업과 제조업의 중소사업장 2만 4천여 곳을 대상으로 수행한 현장 점검에 따르면 사망사고 위험요인이 있다는 지적을 받은 곳은 1만 1천여 곳을 넘었다. 거의 두 곳 중 한 곳인 셈이다. 위험요인 또한 평택항 사고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떨어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노동환경의 현실이다. 평택항의 사고는 그저 어찌 다 일어난 운 없는 사고가 아니며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발생한 필연적인 결과였고 앞으로 계속 발생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인 자본에 호소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는 모두가 알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 호소하는 것도 한 그렇다. 노동해방이 온전히 노동자 자신에 달린 몫이듯 노동자는 그 자신의 목숨을 다른 이에게 책임져 달라고 말할 수 없다. 노동환경을 변화시켜 온 것은 정부가 하사해 온 지침이 아닌 현장 노동자들의 투쟁이었기에 변화를 위해선 노동대중이 현장에서 그들의 기계를 멈추는 수밖에 없다.

” 건설, 제조업 불시 점검해 보니... 2 곳 중 1 곳 '사망사고 위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

4. [지옥에 있는 노무현 나와라!]

오늘, 노무현은 죽었다. 아마도 자살이었다. 타살이던 뭐든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 인간은 죽었다. 사람이 죽은 것을 딱히 기념하고 싶지는 않

다만, 그렇게나 많이 들은 인간의 죽음을 추모하고 있으니 우리 또한 추모의 한마디를 건네고자 한다. 몇 년 전, 나이지리아 신애국자들이 노무현을 예토전생시켰을 때의 그 명언을 우리는 다시금 되살려 보고자 한다.

” 지옥에 있는 노무현 나와라!”

노무현 정권은 한국 역사상 언젠가 있어 왔던 기만적 정권이었음과 동시에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권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다한 정권이었다. 그 어떤 정권들보다도 삼성과 친한 정권이었으며, 군부 정권이 후 최초로 군을 동원해서 위대를 해산시켰으며, 여러 정권들만큼이나 미국 영당이에 붙어 충실히 중노릇을 했던 정권이었다. 어느 정권이냐 그랬든, 노동자들의 투쟁을 깨부수고 박살낸 정권이기도 했다. 흔한 자본가 정권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2021년 5월 23일 오늘, 거대양당을 비롯한 수많은 정당들이 자살해 더 이상 돌아오지도 못하는 노무현을 되살리고자 무덤에 모였다. 죽은 아이 불알비비기라도 하려는 듯 열정적으로 '노무현 정신' 을 되살리고자 한다. 노무현 정신이라니! 미국 영당이에 붙어서 형님, 형님하는 정신? 군대를 동원해서 시위대를 때려잡는 정신? 통합이라는 헛소리 아래에 민중을 분열시키려는 정신? 노동자 대중의 투쟁을 개박살내려는 정신?

대체 뭔지도 모르겠는 그 '노무현 정신' 을 불러오고자 하는 한반도 남쪽의 정당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 아무렇지도 않게 소리칠 수 있을 것 같다. 국가 권력의 수호신이자 파쇼 정권의 수장, 현대 대한민국이라는 제국주의 열강의 정신적 지주인 그분의 추종자들과 그분 정신을 수호하고자 하는 자들, 그분에게 얽혀 가려는 또 다른 파쇼들에게 말이다. 그렇게 '노무현 정신' 을 찾을 바에는 차라리,

” 지옥에 있는 노무현 나와라!”

” 그리움 이 희망으로... 노무현 서거 12주기 추도식 (종합) ” :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3029100052?](https://www.yna.co.kr/view/AKR20210523029100052?input=1195m) in-
put=1195m